



2025 BETHEL THEME

예전히 *Jesus*
ALONE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장 6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비전채플, 찬양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찬양채플
9:00AM(비전채플), 11:00AM(찬양채플)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죠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찬570/새453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이제석 집사 2부/다무라고조 장로 3부/김인규 장로 4부/윤세희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노희석 작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유아 세례식 Infant Baptism Altogether 다같이

2부/장준서(Junseo), 장준우(Junwoo) 3부/김하율(Ilene)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골로새서(Col.) 2:16-23 Altogether 다같이

4부/느헤미야(Neh.) 9:7-15

-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Supreme Jesus(13)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Do It Again(29):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 지나요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나 무엇과도 주님을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여전히 Jesus Alone

-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천국가도 지옥이다

When Even Heaven Would Feel Like Hell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입니다. 나라는 왕의 다스림이 미치는 영역에 세워진 통치와 질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왕입니다. 언제 그 왕이 오실 것인지, 그 왕이 세우는 나라는 언제 우리에게 실제가 될지, 기대하는 통치와 질서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여러 관심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뽑아 세우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는 시도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 속에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인간들은 메시야가 오시면 이루실 나라에 대한 열망이 더해집니다. 나라를 잃어 버리고 독립운동을 일삼은 유대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당연히 이러한 나라에 대한 열망이 극대화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현장을 바로 떠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이 되면 로마제국을 넉넉히 무찌르고 독립하여 자주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 분위기 속에서 왕으로 옹립될 일을 도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여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요 6:15)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자기들에게 밥을 공짜로 나눠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공짜로 밥 먹고 사는 것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생각이 없는 지극히 이기적인 나라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의 결론은 이런 인간들이 세운 사울왕이었고 그는 자기중심의 대명사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왕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왕이 되어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이기적 인간들이 망가뜨리고 있는 세상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을 통해서 그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이 지금 지긋지긋해서 달아날 피안의 세계로만 간주하는 것은 너무 협소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시제로 더욱 그 의미가 빛나는 실제입니다. 지금 현재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어째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자행자지 하고 싶은 욕심을 내 안에 계신 왕, 예수님의 통치로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통치로 영원히 다스려지는 천국에 가서도 지옥일 것입니다.

Jesus said this as He preached the gospel: "The time is fulfilled, and the kingdom of God is near.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Mark 1:15). The core of the Gospel is the kingdom of God. A kingdom is the rule and order established within the domain where the king's reign reaches.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core of this is the king. When will this king come? When will the kingdom that this king establishes become a reality to us? What kind of rule and order will this long-awaited kingdom bring with it? There are many such questions and expectations.

In the world, we often see people trying to elect the king they want, or even trying to become king themselves. But as people have experienced disappointment and despair through such histories, their longing for the kingdom that the coming Messiah would establish only grows deeper. For the Jewish people who had lost their nation and were repeatedly engaged in independence movements, the coming of Jesus Christ would have naturally intensified that longing. There was an occasion when Jesus fed 5,000 people with five barley loaves and two fish. The people who experienced this miracle all shared the same thought: "Wouldn't it be great if Jesus became our king?" But Jesus immediately withdrew from that place. People expected that if Jesus became king, He would easily defeat the Roman Empire and establish an independent, self-governing nation. However, knowing what was in their hearts, Jesus did not remain in that atmosphere where He might be made king, but instead withdrew to a place of prayer (John 6:15).

People probably thought that if they received Jesus as king, He would be someone who gives out free food. The kingdom that human beings imagine is extremely selfish—a kingdom where they think of nothing beyond eating for free and living comfortably. The conclusion of the era of the Judges, when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their own eyes, was King Saul—a king established by people like that, and a symbol of self-centeredness. In contrast, King David—established by God—is described in the Bible as a man after God's own heart. King David is a foreshadowing of Jesus. That same Jesus said, "The kingdom of God is near." It is a kingdom built with Jesus as the king. It is a kingdom where the reign of God is realized through those who receive Jesus as King, in the midst of a world ruined by selfish humanity. To regard the kingdom of God merely as a place of escape from this weary, broken world is a very narrow view. The kingdom of God is a present reality—its meaning shines even more in the present tense. I believe that if we do not experience the kingdom of God here and now, then we will not enter it even after death. Though it may sound extreme, I would go so far as to say: If we do not experience the rule of the King—Jesus who dwells within us—ruling over our selfish desires and our urge to live however we please, then even in heaven, eternally ruled by Jesus, it will feel like hell.

주일 설교 시리즈: 골로새서 강해 (13)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Supreme Jesus!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골 2:16-23)

1. 골로새교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은 복음의 본질을 잊어 버리고, 행위나 규칙준수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로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16절)

적용하기

2. 안식일 지키는 일로 예수님도 여러 번 시험대에 오릅니다. 참고 구절을 읽으시고, 그림자와 실체를 설명해

보십시오.(17절, 참고/ 마 12:1-8, 고전 13:10)

3. 18절에 '꾸며낸 겸손'이 무엇인지 23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꾸며낸 겸손은 경건에 유익이 있습니까?

4. 절기, 안식일, 천사 송배, 신비주의는 죄를 금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반면 복음은 우리의 영적 성장/경건에 어떤 도움과 유익을 줍니까?(18-22절)

5.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의 본질과 평화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23절, 참고/ 고전 13:1-2)

선교 후기

코스타리카

그리스또 테 애마!!

해외 선교는 처음이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하는지 많은 고민과 궁금함으로 시작한 선교였습니다. 오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해왔던 저로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선물을 어떤 형태로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직 '순종'뿐임을, 첫날 첫 사역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준비한 것들을 꺼내어 자랑삼아 예쁘게 진열하고 시작하려 했던 교만은, 선교사님의 소명인 '한 영혼이라도 더 불러 복음을 전하시려는 마음' 앞에 무너졌고, 습하고 더운 날씨에 이미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정말 골고루 30대, 40대, 60대, 곧 70을 앞둔 믿음의 선배님들과 함께 온몸을 다해 "그리스또 테 애마,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를 목이 터져라 외치며, 입에 붙지 않는 스페인어로 찬양하고, 율동으로 망가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목사님과 대장 장로님, VBS 팀원들, 예쁘게 사진 찍어주시려 엄청나게

진지하셨던 장로님과 팀장님, 그리고 평생 처음 눈 검사를 받아 본인의 질병조차 모르던, 생존의 전선에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분들에게 안경을 맞춰드리는 사역까지 정말 대단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협력하여 선을 행함'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튿날, 팀원 모두가 세 조로 나뉘어 걸어서 30가정을 방문하며 전도하는 가정방문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남과 말씀 전함, 기도와 회복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도 우울증을 앓는 아이를 감당하지 못해 울고 있는 엄마, 교회의 지도자가 옳지 못하다하여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 자전거로 왕복 3시간을 타고 바나나 농장에서 일해야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젊은 남자, 이처럼 사람 사는 곳 이기에 같은 고민이 있었지만, 이 땅에서의 고달픔만 있고 천국의 소망이 없다는 점에서 가슴

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자, 일어서자.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여야 한다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선교와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코스타리카 단기선교는 우리에게 '은혜'였고 '도전'이었습니다.

정정애 권사



예배 간증

엘리사 새벽기도회

떠밀린 자리, 복된 기도의 자리



때로는 떠밀린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엘리사 새벽기도회처럼요. 한주 동안 진행된 충성목장 새벽기도는 사실 한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셀가족들의 구구절절한 기도제목을 모았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목장 목사님, 사모님, 도우미 권사님이 기도로 준비하심을 알았기에, 마음먹고 잠 깨어 하나님 앞에 앉아야 했습니다. 셀가족은 물론, 목장 가족들의 믿음, 자녀, 직장, 신분, 건강을 위해, 베델교회와 세상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려고 모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었습니다. 일면식이 없어도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했습니다. 더 이른 새벽부터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믿음의 선배님들의 격려와 사랑도 받았습니다. 어김없이, 떠밀린 기도의 자리도 복된 자리가 됩니다. 저에게 엘리사 새벽기도처럼요. 기도하기 전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잘 기다리게 됩니다. 셀가족들, 충성목장, 베델교회,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하는자의 여유와 기도의 재미를 조금씩 알아가는 복! 이 복을 고스란히 나에게 돌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주희 집사

지난주에 있었던 저희 충성 목장 엘리사 새벽기도회, 첫날 화요일 새벽,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부담스러운 마음을 안고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는 마음보다는, 목장 총무로서

엘리사 새벽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부담감, 매일 아침 커피와 보리차를 준비하면서 모든 분의 입맛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머릿속에 맴도는 목사님의 공지 사항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시 우리 주님은 다르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나와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 예배와 기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의 말씀, 그리고 목장이 함께 모여 예배 후 나누는 형제자매의 나눔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걸음 나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심을 다시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대웅 집사

믿음의 고백

나의 약함이 복음의 통로로

최근 한국에 있는 넷째 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림프관 평활근종증'이라는 희귀 진행성 폐질환을 진단받고,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을 통해 저와 남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10년도 버티기 어렵다고 했고, 6년 전에는 폐 이식을 하지 않으면 2년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했지만, 저는 지금까지 이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고, 조금만 많이 걸어도 숨이 차 산소를 주입해야 할 때가 가끔 있지만, 가만히 앉아 있거나 대화할 때는 아무도 저를 환자로 알아

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남편과 함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언니는 저를 신뢰하게 되었고, 제가 믿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제 부족하고 약한 몸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한 달 전 언니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불들고 울며 드렸던 저의 기도는 하나님 잊히지 않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언니가 저의 건강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폐 기능이 정상인의 20%에 불과한 저는 비행기를 타는 것도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니는 저의 건강이 회복되어 자유롭게 한국을 오갈

수 있기를, 그리고 한국에서 함께 예배드릴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전화 너머로 전했던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 맺는 모습을 보고, 또 언니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금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불가능이 없습니다.

지금도 나의 몸은 힘들고 완전히 나아지진 않았지만 능력과 치유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며 나의 힘듦과 고통을 아시고 나를 업고 가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더 건강해져서 언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힘주시길 오늘도 기도합니다.

김조이 집사

교회학교 간증
유치부 교사

교사로서 함께 배우고 성장해요

유치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나누는 귀한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매주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며, 그들의 순수하고 맑은 믿음을 통해 저 또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작은 손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는 모습은 제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며 믿음을 키워 나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은 큰 기쁨이자 감동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팀장으로서 기도하며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인내, 그리고 사랑을 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 일하시고 계심을 느낍니다.

이 사역은 저에게 큰 축복이며, 매 순간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게 하시고 늘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

려드립니다.

정민주 권사

매주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이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정말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주말에 교회에 오기 어려웠던 마음이, 아이들의 기쁜 표정을 보며 사라지고 행복하게 섬길 수 있음에 벅차오르는 기쁨을 느낍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설명하고 그 반응을 볼 때, 그들의 순수한 반응은 제 믿음에 더욱 도전이 됩니다. 그들의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며 하나님의 진리를 느끼고 '내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깨닫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교사로서의 역할과 교회학교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교사의 위치에서 저 또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얻으며, 하나님께서 주시

는 은혜로 매일을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항상 이 자리에서 아이들의 작고 예쁜 표정과 손짓을 보며 힐링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황채원(예설)



교회학교 소개

교회학교 찬양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 ILIAH

베델교회 교회학교 찬양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사랑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를 찬양의 리더로 세우기 위한 찬양 리더십 프로그램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 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을 중심 구절로 삼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찬양팀은 2학년부터 5학년까지 60여 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주일 예배 30분 전부터 모여 찬양을 준비합니다. 매달 한번 진행되는 OICOS Worship 후에도 함께 연습하며, 찬양뿐 아니라 팀워크와 섬김의 자세도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찬양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매일 QTin을 실천하고, 주간 성경 암송과 The New City Catechism을 외우는 영적 훈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름성경학교(VBS)를 위한 찬양 준비가 매주 토요일마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델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한지도 어느덧 10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많은 아이들이 찬양팀을 거쳐 자라났고, 지금은 중고등부 찬양

팀에서 섬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특히 매년 여름이 되면 찬양팀으로 섬기고 싶다며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베델 찬양팀은 단순한 음악 활동을 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믿음의 훈련의 장입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이 찬양팀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예배자로 자라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귀한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Kevin Ma 집사

교회학교 간증

QT



I read QTin every morning on my way to school. It helps me connect with God and pray about a variety of things like school, friends, and family. The examples of instances where kids around my age about the passage help me to understand and link to the Bible better. It makes me think about how I could improve my life. The verse, "I will comfort them. I will give them joy instead of sorrow," reminds me that God is always with me and that he will pick me up if I fall down, and keep me going no matter what.

Alex Song(4학년)



QTin is a time to worship and communicate with God. In Jeremiah, 31:11-14, God told the Israelites that He will

I like to do QT everyday!!

save them, fill them with joy, and comfort them when they return to God. I saw that God always wants the best for us and loves us even when we sin, which touched my heart because it means that God will always be graceful, merciful, and forgiving towards us. During my QT time, I learned more about God and strengthened my faith. Through QTin, I strongly believe that God is truly talking to me through this important time.

Helen Hong(5학년)



When I started my QTin, I did it because my mom forced me to do it. I didn't like it at first. It was too hard and I didn't understand it much. I complained a lot and a lot of my applications for my early QTin were not to complain. I've been doing QTin for more than a year

now. I like to read the Jewelry testimony. Sometimes it is related to my life and I can learn from it too. One of my favorite things about QTin is that my family can talk about it during dinner time. The scripture tells me about what I should do and what I shouldn't do. It also tells me how much God loves me. I encourage all Bethel people to do QTin with the family.

Jeremiah We(4학년)



QT is a short, yet great time to learn God's word. I have been learning about freedom, justice and promises from God. Even though he hasn't talked to me, I love his way that always gives us hope. I can see his miracles and presence with his people through the QT. I like to do QT everyday.

Naisha Kim(5학년)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총성/훈련/BCA: 정승락 목사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Joy/화평/섬김: 박성권 목사
 사랑/QT: 조태현 목사
 은혜/예배: 서동민 목사
 믿음/공동체: 조동현 목사
 온유/말씀/QTin: 배홍수 목사
 BGC 담임: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예삶채플(총괄): 강슬로몬 목사
 예삶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삶채플: 이형석 전도사
 예삶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영어고등부: 최소영(Kristin) 전도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영어중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성우 목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치부: 정티나 목사
 영아부/아기학교: 최미경 전도사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케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예술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조주은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음향: 강창위, 한 진
 디자인: 박선경
 웹/IT: 김경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베델한국학교 가을학기 등록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한국어를 배우는 2025년 베델한국학교 가을학기 등록을 시작합니다. 최근 K-Culture의 확산으로 현지인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어는 이제 2세들을 위한 계승어를 넘어 모두가 함께 배우는 언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베델한국학교는 42년 동안 얼바인 지역을 넘어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큰 규모와 양질의 프로그램을 자랑하며 매년 30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재미있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는 매주 토요일 14주간 진행되며, QT 시간을 통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읽기/쓰기/듣기/말하기 활동을 통한 한국어 수업, 문화와 역사 수업을 통한 뿌리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에도 '추석' 맞이 한가위 전통놀이 수업, '한글날' 세종대왕 관련 수업, '김치의 날' 김치 만들기 수업을 통해 미국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방과 후에 진행되는 예체능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창의력 향상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주간 특별활동으로 운영된 베델합창반은 제36회 동요합창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성스럽게 준비되는 건강하고 맛있는 점심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 중 하나입니다. 2025년 가을학기, 베델한국학교와 함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즐겁게 배우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 등록 기간: 5월 18일(주일)~5월 25일(주일)

▶ 수업 기간: 9월 6일(토)~12월 13일(토) *11월 29일(토) 추수감사절 휴강

▶ 수업 내용: QT, 한국어, 문화, 역사

▶ 등록 방법: koreanschool.bkc.org, QR 코드

▶ 문의: 윤주원 장로 (949)892-9516, 윤미나 집사 (310)913-3360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5,6월)	5/25: ①부-이양수 6/1: ①부-이종선 6/8: ①부-안지호	②부-박상곤 ②부-박세환 ②부-박영덕	③부-이우용 ③부-이해원 ③부-정낙성	④부-이예진 ④부-이주혜 ④부-이진호
-----------------	--	----------------------------	----------------------------	----------------------------

헬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5,6월)	5/24: 한태욱	5/31: 한종석	6/7: 강정엽	6/14: 현승원
---------------------	-----------	-----------	----------	-----------

강단꽃(5,6월)	5/18: 이선옥, 임명신	5/25: 왕동원	6/1: 윤주원, 지효정	6/8: 송상희
-----------	----------------	-----------	---------------	----------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한우광(한의과), 간호사-윤경자 다음주 | 의사-김혜선(소아과), 간호사-장한나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더)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영), 이상훈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 **수요저녁예배**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과 뜨거운 찬양으로 한주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장소: 5월 21일, 저녁 7시 30분, 조태현 목사

문의: 김종학 집사 (949)285-9408

*QR코드를 스캔하셔서 함께 부를 찬양을 미리 만나세요!



◆ **제5기 베델기도학교 종강모임** 13주간의 기도학교 훈련 과정을 마친 제5기 베델기도학교 수료생들을 위한 축하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모든 수료생이 교회 구석구석으로 보내져 속한 자리마다 기도의 불씨 일으키는 기도의 용사로 쓰임 받도록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5월 22일(목) 오후 6시 30분, 비전채플

문의: 양승화 집사 (714)512-1236

◆ **한국선교 140주년 역사비전탐방 참가자 모집** 복음의 불모지였던 한반도에 선교사들이 밭을 디딘 지 14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복음의 씨앗으로 심기운 선교사들의 흔적과 한국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며, 새로운 비전을 품는 여정에 함께 하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탐방 기간: 9월 23일(화)~28일(주일)

인솔: 김한요 담임목사, 주성필 목사

문의: 김도석 장로 (714)401-0532

◆ **베델한국학교 가을학기 등록** 즐겁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베델 한국학교가 2025년 가을 학기 등록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QR 코드로 확인해 주세요. (7면 참고)



신입생 등록 기간: 5월 18일(주일)~25일(주일)

문의: 윤주원 장로 (949)892-9512, koreanschool.bkc.org

◆ **BYM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등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름, 새로운 변화의 시작 BYM 중고등부 연합 여름 수련회 'Cross Country'에 초대합니다. 예배, 말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1~3부 예배 후에 코트야드에서 의류판매로 이번 수련회를 위한 펀드레이징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부탁 드립니다.

일정: 8월 4일(월)~8월 7일(목)

장소: Campus by the Sea(Catalina Island)

회비: \$300(형제자매 할인 없음)

등록 방법/마감: 부서에 맞게 중등부, 고등부 각각 QR 코드를 통해서 6월 8일(토)까지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고등부〉

〈중등부〉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 AWANA(어와나):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수요반(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아채플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헬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닮금요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기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인경,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정원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향수정 집사

사진 기자: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번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Bethel Announcements

◆ **여름성경학교(VBS) 교사/TA 훈련** VBS 시즌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올해 VBS에 함께 섬기실 K-5 및 영아/유아/유치부 교사와 TA 분들을 위한 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훈련 일정: 5월 18일, 5월 25일, 6월 1일, 6월 8일 (총 4회)

시간/장소: 오후 12시 45분~오후 3시, 체육관(점심이 제공됩니다.)



◆ **베델콰이어 프로젝트 단원 모집** 베델콰이어에서 OC기독교 전도회 연합회가 주최하는 37회 연합 성가 합창제에 함께할 프로젝트 콰이어를 모집합니다.

행사 일시: 6월 29일(주일) 오후 6시

행사 장소: 은혜한인교회 본당(교회 버스로 이동)

연습 시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8시 30분

신청 방법: QR 코드

◆ **베델 리사이클링** 캠페인 유리병, 플라스틱병, PET, 캔을 모아 주시면 수익금을 선교지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재활용 수거용 봉투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장소: 본당 앞 부스

문의: 윤대호 집사 (714)702-6888

◆ **상담해 드립니다** 개인 생활과 가정, 자녀 문제 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매주 금요일 상담 협동 목사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오니,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박성권 목사 (718)490-9931

◆ 기도해 주세요

- Q국 단기선교가 5월 12일(월)~21일(수)에 있습니다.

- 베트남 단기선교가 5월 12일(월)~20일(화)에 있습니다.

◆ 축하해 주세요

오늘(18일) 2부 예배에 장세인/이정은 집사의 두 아들 장준서(Junseo)와 장준우(Junwoo), 3부 예배에 김경준/조은진 집사의 딸 김하율(Ilene)의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김기연 집사님(윤희식 집사의 모친, 손혜미 집사의 시모)께서 5월 13일(화)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Supreme Jesus!

Do Not Let Anyone Judge You

(Colossians 2:16–23)

1. The Colossian Church was suffering from conflicts and divisions because they forgot about the essence of the Gospel, instead focusing on actions based on compliance to rules. What example did Apostle Paul give regarding this? (v. 16)

2. Even Jesus was tested several times due to rules regarding Sabbath day. Read the referenced verses and explain the truth and reality versus the shadow. (v. 17, Ref: Matt 12:1-8, 1 Cor 13:10)

3. The phrase "false humility" found in verse 18 is explained in detail in verse 23. Does false humility provide any value to being godliness?

4. Adherence to religious festival, Sabbath day, worship of angels or mysticism does not help in avoiding sinfulness. On the other hand, what help and value does the Gospel bring to spiritual maturity and godliness?

5. What resolution would you personally make in order to love the Gospel, and bring true essence, peace and order to the church?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